

#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4일 강동구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7) 상정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7)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 동 구 의원)

가. 주문이유

- 부천문화재단 박두레 상임이사과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정책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시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2007년 제138회 임시회에서 재임용 동의 시 상임이사의 재임기간 발생되었던 많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연임을 동의하였으나 임기개시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87만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부천문화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바 인사권자인 시장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해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됨.

-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정책 집행에 전념해야 할 상임이사가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인사들의 금전거래와 사업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부천의 문화적 수준은 퇴보하고 부천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사업의 향유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인사권자인 시장이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천 문화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87만 부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인바, 박두례 부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제477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발의년월일 : 2009. 9. 4.

발 의 자 : 강동구의원등7인

부천문화재단은 사업내용과 예산규모를 종합해 볼 때 부천시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부천시 문화정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잇따른 돌출행동과 업무추진 및 관리의 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시장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사태를 묵인하여왔기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금번 발생한 상임이사의 경솔한 행동은 어떠한 변명이나 논리로도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것이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며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내용들은 준 공무원 신분인 문화재단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이러한 행위와 관련 인사권자인 시장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음주운전, 자녀들의 부적절한 수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관급공사 업자들의

금전거래 개입)에 대하여 87만 부천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87만 부천시민과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

만약 금번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천문화재단 상임 이사직은 공익보다 개인의 사욕을 위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리로 인식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로 하여금 부천 문화재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듯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묵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의 해임만이 실추된 문화재단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직책이 무늬만 유지하고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부천시의회는 87만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전념해야 할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즉각 상임이사를 해임하고 실추된 문화재단의 위상을 바로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부천시장은 그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돌출행동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임이사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나 문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장은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즉각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